

브레히트의 ‘갈릴레이 희곡’ 판본 연구

- 주인공 갈릴레이에 나타난 과학자상(像)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성균 (중앙대)

국문요약

이 글은 ‘갈릴레이 희곡’의 완성본인 ‘덴마크 판본’, ‘미국 판본’, ‘베를린 판본’이 지닌 독자적 의미와 가치를 살핀다. 이를 위해 각 판본을 잉태한 시대적 맥락과 작가의 시대 인식 그리고 문제의식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 갈릴레이를 중심으로 각 판본의 특징을 천착한다. 갈릴레이 희곡은 대중의 역사적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근대과학의 선구 갈릴레이를 시대현실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다. 그 결과 세 개의 판본은 각각 ‘노획한 과학자’, ‘실패한 과학자’, ‘고뇌하는 과학자’를 탄생시킨다. ‘역사적 갈릴레이’에 ‘지금, 이곳’의 맥락에서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갈릴레이들’의 존재 의미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온전히 발휘된다. 이들은 실존 인물 갈릴레이에 대한 관객의 기대지평을 도발하면서 시대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을 촉구한다. 이 점에서 갈릴레이 희곡의 세 판본은 변화하는 시대현실과 역동적인 대화를 통해 탄생한 브레히트 리얼리즘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핵심어: 브레히트, 갈릴레이 희곡, 노획한 과학자, 실패한 과학자, 고뇌하는 과학자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갈릴레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른바 ‘갈릴레이 희곡 Galilei-Stück’은 후기 브레히트의 역작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역사적 인물을 수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작을 시도한 대표 사례인 갈릴레이 희곡은 미완성작으로 남은 ‘원형 갈릴레이 Ur-Galilei’ 「지구는 돈다 Die Erde bewegt sich」(1938)와 ‘덴마크 판본’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1938/39), ‘미국 판본’ 「갈릴레오 Galileo」(1947), ‘베를린 판본’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

(1955/56) 등 세 개의 완성본이 있다.

갈릴레이 희곡은 1988년 브레히트 신전집(Brecht 1988-2000)¹⁾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브레히트 문서보관소 Bertolt Brecht Archiv 등 도처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어 한 눈에 살피기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베르너 헤히트 Werner Hecht, 얀 크노프 Jan Knopf, 베르너 미텐츠바이 Werner Mittenzwei, 클라우스 데틀레프 뮐러 Klaus-Detlef Müller 등 동서독을 대표하는 브레히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편집한 브레히트 신전집이 출판되면서 갈릴레이 희곡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Hallet 2012, 11). 갈릴레이 희곡의 첫 완성본인 덴마크 판본이 쓰인 후 50년이 지나서야 후기 브레히트의 역작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갈릴레이 희곡의 세 판본이 지닌 독자적 의미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러 판본을 가진 갈릴레이 희곡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 개 판본의 고유한 가치를 살피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갈릴레이 희곡의 완성본인 ‘덴마크 판본’, ‘미국 판본’, ‘베를린 판본’이 지니는 독자적 의미와 가치를 살필 요량이다. 이를 위해 각 판본이 탄생한 시대적 맥락, 브레히트의 시대인식과 작가적 문제의식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 갈릴레이에 나타난 과학자상(像)의 변화를 중심으로 각 판본의 특징을 천착하려고 한다.

1) 브레히트 신전집의 인용은 GBA와 권수, 쪽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이런 현실은 독일의 대표 브레히트 연구가 크노프의 저술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덴마크 판본은 ‘갈릴레이의 저항’에, 미국 판본과 베를린 판본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주제적 해석을 시도한다(Knopf 2001, 358f.). 그러나 미국 판본과 베를린 판본의 ‘질적 차이’를 천착하지 못한 이 접근법으로 크노프는 세 판본의 독자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브레히트 사전 Brecht Lexikon』이 보여주듯(Kugli/Opitz 2006, 172), 크노프의 접근법은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점에서 갈릴레이 희곡 판본의 국내 연구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한국브레히트학회 2001, 268f.). 이런 배경에서 주인공 갈릴레이에 나타난 과학자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 판본의 고유한 가치를 살피는 이 논문이 갈릴레이 희곡의 심도 깊은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원형 갈릴레이': '갈릴레이 희곡'에 이르는 길

브레히트의 '갈릴레이 희곡' 구상은 193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2년 소련의 저술가 세르게이 트레차코프 Sergej Tretjakow(1892-1937)와 가진 인터뷰에서 브레히트는 장차 베를린에 판옵티콘 극장을 세우고, 소크라테스, 지오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기의 재판'을 공연 무대에 올릴 계획을 밝힌다(GBA 5.332). 당대의 지배 권력에 저항하다 희생되지만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다. 엘리자베트 하우스프트만 Elisabeth Hauptmann(1897-1973)에 따르면, 브레히트는 이때부터 1633년에 벌어진 갈릴레이 종교재판을 희곡작품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GBA 5.332).

1933년, 갈릴레이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파문을 당하고 만 300년이 되던 해, 제국의회 방화사건 Reichstagsbrand의 주모자로 체포된 불가리아 노동지도자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Georgi Dimitroff(1882-1949)를 통해 갈릴레이는 저항정신의 표본으로 새로이 주목받는다(GBA 5.333). 동년 2월 17일, 반(反)나치 세력을 축출할 목적으로 히틀러의 심복 헤르만 괴링이 -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봉기와 독일 헌정질서 파괴의 신호탄"(장석준 2007, 272)으로 - 조작한 이 공안 사건의 법정 최후진술에서 디미트로프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 종교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나치 판사들 역시 진실의 궁극적인 승리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한다(장석준 2007, 281). 이 재판의 시종을 지켜본 브레히트는 삼엄한 나치 법정을 압도한 불가리아 노동지도자의 결연한 태도에 감탄한 나머지 「디미트로프 Dimitroff」(GBA 14.234f)라는 시를 짓기에 이른다. 이렇게 나치의 압제에 의연히 맞선 디미트로프의 최후변론은 르네상스의 역사적 인물 갈릴레이를 브레히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킨다.

약관 25세의 나이에 반군국주의 시 「죽은 병사의 전설 Die Legende vom toten Soldaten」(GBA 11.112ff.)을 발표하면서 나치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브레히트는 일상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작가적 투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그러나 제국의회 방화사건을 빌미로 나치 히틀러가 반(反)정부 지식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자 브레히트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는 망명길에 오른다. "신발보다 나라를 더 자주 바꾸어가며" 술한 망명지를 떠돌면서도 브레히트의 나치투쟁은 간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 유럽지배 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나치 독일은 1936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1938년 영국, 프랑스와 뮌헨 협정 Münchner Abkommen을 체결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면서 정복전쟁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Holborn 1981, 584f).

나치의 유럽지배가 확대되면서 위기에 몰린 브레히트는 투쟁작가로서 자기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여기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인물 갈릴레이, 지배 권력의 폭압에 자신의 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지만 끝내 이를 포기하지 않는 전설적 인물을 나치에 항거할 정신적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치 투쟁을 위해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는 것은 당시 작가들 사이에 일반화된 창작방식이었는바(Völker 1983, 185), 브레히트는 갈릴레이를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호명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히트는 1938년 11월 ‘원형 갈릴레이 Ur-Galilei’라 불리는 갈릴레이 희곡의 초기 구상을 펼친다. 갈릴레이의 말을 빌려 「지구는 돈다 Die Erde bewegt sich」는 제목을 붙인 원형 갈릴레이는 갈릴레이의 저항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작품으로 완성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갈릴레이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으려 한 브레히트의 의도만은 오롯이 보여준다. 여기서 새삼 주목할 것은 원형 갈릴레이가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의 인물로서 갈릴레이가 지닌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감정”(브레히트 2005, 264)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 천년을 지탱해온 세계관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든 ‘새 시대의 표상’으로서 갈릴레이를 형상화한다. 브레히트가 이러한 갈릴레이를 통해 신성로마제국에 이은 ‘천년 왕국’의 꿈을 재현하려는 ‘야만의 시대’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야만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행세를 하고 있다. 야만의 시대가 천년 동안 지속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GBA 24.237).

원형 갈릴레이가 역사적 인물 갈릴레이의 본질적 특징을 수용함으로써 작가는 나치 독일에 잔류한 과학자들이 갈릴레이처럼 지배 권력에 맞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갈릴레이를 역사적 인물로 재현한 원형 갈릴레

이의 창작방식에 머물 수 없게 했다. 과거의 인물과 지나간 '예술과 과학의 전성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갈릴레이도, 갈릴레이의 시대도 결국 하나의 '역사적 유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히트는 반문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낡은 시대를 고수하란 말인가? 침몰한 아틀란티스 대륙을 얘기하란 말인가? 나는 야영지에 누워 아침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아침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이미 지나간 아침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난 300년 전의 예술과 과학의 전성기를 다루는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GBA 24.237).

이제 브레히트는 '원형' 갈릴레이가 '원형적으로' 형상화한 '불굴의 저항정신을 지닌 새 시대의 표상'이라는 역사적 인물 갈릴레이를 시대현실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주를 시도한다. 역사적 기억 속에 깊이 자리잡은 인물 갈릴레이를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능동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부여한다. 갈릴레이 희곡의 새로운 판본과 갈릴레이들이 탄생하게 된 연유이다.

III. 세 개의 판본: 시대사에 대한 성찰

III.1. 덴마크 판본 「갈릴레이의 생애」(1938/39): '노회한 과학자'

1938년, 나치의 제국주의 야욕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독일 국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브레히트가 원형 갈릴레이를 구상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정국을 완전히 장악한 나치 히틀러는 과학자들을 군비확장을 위한 동원 체제에 완벽히 편입시킨다. 원형 갈릴레이를 통해 기대했던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브레히트는 「갈릴레이 서문 Galilei Vorwort」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밤으로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암시하는 건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밤을 맞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 단잠을 자고 나면 아침이 오듯, 행운의 시대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GBA 24.237).

원형 갈릴레이의 문제의식은 더 이상 존재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나치 판사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던 디미트로프처럼 강고한 지배 권력에 맞서 분연히 투쟁에 나서는 인물은 현실성을 지니기 어렵게 된 것이다. 1939년 2월,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를 제목으로 한 ‘텐마크 판본’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다. 주인공 갈릴레이는 ‘밤을 맞는’ 엄혹한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은밀한 연구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지배 권력에 굴복하지만 내적으로는 끝내 ‘정복되지는 않는’ 노획한 인물로 거듭난다.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새로운 면모를 형상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펼친다. 무엇보다 먼저, 흑사병 장면(5장)(GBA 5.47ff.), 학설 철회 장면(12장)(GBA 5.89ff.), 은밀한 연구 수행 장면(13장)(GBA 5.94ff.), 연구결과의 밀반출 장면(14장)(GBA 5.107ff.) 등을 중심으로 작품의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이는 ‘흑사병이 창궐한 가운데 연구활동에 매진하는 열정적인 학자 갈릴레이가 자신의 학설을 철회한 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은밀한 연구를 계속해나가며, 이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해외로 밀반출한다’는 서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갈릴레이가 지배 권력에 굴복해 학설을 철회한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은밀하게 계속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지략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장(14장)은 ‘지배 권력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의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함으로써 갈릴레이의 행보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로써 갈릴레이의 일련의 행보는 짐짓 역사 발전을 위해 학문적 사명을 다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산물로 이해될 개연성을 얻는다.

갈릴레이의 실천 논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특히 8장에 삽입된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1561-1626)의 자연관과 ‘코이노의 비유’는 그 대표적인 예다. 브레히트는 “우리는 자연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한다”(GBA 5.68)는 르네상스의 철학자 베이컨의 자연관과 ‘침예한 폭력에는 정면으로 대응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는 비유적 이야기(GBA 5.78 f))를 통해 엄혹한 현실을 넘어서려는 갈릴레이의 저항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갈릴레이에 대한 안드레아의 입장 변화는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스승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에 크게 실망했던 안드레아가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화해를 청하는 장면(GBA 5.105)을 통해 갈릴레이의 행보는 재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 같은 덴마크 판본의 저항방식은 1935년 8월 모스크바의 제7차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세계대회에서 디미트로프가 제안한 “트로이의 목마 전술”과 맥을 같이 하는데(GBA 5.333), 이것이 갈릴레이를 노획한 과학자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지배 권력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이성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Hallet 2012, 19f.).

여기서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의 전략적 행동에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차후 미국 판본의 작업과정에서 표면화되지만,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가 진리 탐구와 전파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가 지배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진리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고한 학자적 신념에 바탕을 둔 학문적 진리가 절대적 권위를 누린다면, 학자로서 근본적인 흠결을 지닌 갈릴레이의 연구는 ‘탈인격화된 진리’(vgl. Völker 1983, 186)로서 그 권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브레히트는 이런 문제의식을 13장 갈릴레이의 자기비판을 통해 이렇게 구체화한다.

학문 세계의 구성원은 연구자로서 자신이 성취한 이런저런 업적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것을 온갖 폭력으로부터 지켜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GBA 5.102).

덴마크 판본은 갈릴레이를 수학자, 천문학자를 넘어 물리학자로 등장시킨다. ‘노획한 과학자’ 갈릴레이의 연구 분야를 물리학으로 확장시켜 당대의 과학 발전을 반영하려는 의도다. 유례없는 과학 발전에 열광한 당시 인류는 물리학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길 해방적 잠재력을 보았는데, 브레히트는 이러한 기대를 주인공 갈

3) 본래 이 이야기는 「폭력에 대처하는 법 Maßnahme gegen die Gewalt」(GBA 18.13f.)이라는 제목으로 「코이너씨 이야기 Geschichten vom Herrn Keuner」에 실려 있다.

릴레이에 투사한 것이다.

이히 알다시피 당시 유럽 물리학계의 화두는 단연 핵분열 실험이었다. 1938년 12월 독일 과학자 오토 한 Otto Hahn(1879-1968)과 프리츠 스트라스만 Fritz Straßmann(1902-1980)은 우라늄 핵분열 성공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발견했으며, 덴마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닐스 보아 Niels Bohr(1885-1962) 연구소를 중심으로 핵분열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핵물리학의 시대가 열린다(임경순 1995, 81ff. 참조). 핵물리학의 시대적 중요성에 주목한 브레히트는 1939년 스웨덴에서 행한 강연 「실험적 연극 Über experimentelles Theater」에서 보아 연구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최근 나는 라디오에서 진정 역사적인 장면을 경험했다. 위대한 물리학자 닐스 보아 연구소의 인터뷰였다”(GBA 22.1.549). 핵분열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신중히 모색되는 가운데(임경순 1995, 160), 브레히트는 핵분열이라는 과학적 발견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건다. 과학의 발전이 역사의 진보를 견인하리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기대였음은 물론이다. 핵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으로 나치 독일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길 조심스럽게 고대하는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인류의 재화를 무한히 증가시킬 지극히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세계의 많은 지역은 어둠에 묻혀있다. 심지어 그곳의 암흑은 더욱 심해졌다! 진실을 가슴에 품고 독일을 지나는 그대여, 조심하시오!(GBA 5.106)

핵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에 건 희망은 과학의 발전을 역사의 진보와 동일시한 시대정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의 존재의미를 과학적 진리의 탐구 자체에 두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하루 속히 ‘어둠의 역사’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핵물리학에서 해방적 잠재력을 보게 한 것이다.

브레히트가 과학적 발전에 건 기대는 덴마크 판본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는 핵분열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암시하는 대목을 작품에 추가하는 한편(vgl. GBA 5.106), 작품에 도입한 물리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보아 연구소의 연구원 크리스티안 뮐러 Christian Möller(1904-1980) 등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학문적 정확성을 기한다(GBA 5.340). 이런 맥락에서 물리학에 대한 문학적 수용의 정확성과 정교함에 대해 한스 라이헨바흐 Hans Reichenbach(1891-1953) 같은 당대

의 유력 과학자들이 찬사를 보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GBA 5.341). 이는 브레히트가 당대의 첨단 과학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브레히트는 1939년 2월 완성된 덴마크 판본의 원고를 공연예술계 인사, 출판사 대표,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보낸다. 이는 물론 유럽에서 갈릴레이의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려는 시도였으나 덴마크 판본의 운명은 험난하기만 했다. 뮌헨 협정 이후 나치의 유럽지배가 확대되면서 유럽의 공론장에서 덴마크 판본의 역할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체코 프라하의 말릭 출판사가 계획한 출판기획이 무산되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익명으로 추진한 공연과 라디오 방송극 프로그램이 불발로 그쳤다. 이미 나치 히틀러의 영향력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속속 파고들고 있었던 까닭이다(GBA 5.337f.). 이처럼 '덴마크' 판본은 '덴마크'의 공론장에서 선보일 가능성, 즉 덴마크 판본을 통한 작가적 투쟁은 그 어느 것도 실현할 수 없을 만큼 침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⁴⁾

III.2. 미국 판본 「갈릴레오」(1947): '실패한 과학자'

유럽에서 덴마크 판본 「갈릴레이의 생애」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좌절을 겪었다면, 새로운 망명지 미국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걸림돌이 되었다. 1941년 6월 브레히트는 '갈릴레이 희곡'의 공연에 대한 희망을 접지 못한 채 망명지 미국에 도착한다. 하지만 '순수 자본주의' 미국의 연극문화를 목격한 브레히트는 이 부질 없는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새 시대를 열어 갈 진리의 탐구와 전파'라는 주제는 미국 상업주의 문화가 소화하기엔 지나치게 진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브레히트는 이런 생각을 1941년 12월 27일 「일지 Journal」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난 마치 침몰한 대륙에서 기이하고 몰락한 오랜 옛날의 연극을 회상하는 듯하다. 여기서 전 저녁시간의 유흥거리를 파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 무대 위에서 한 나라

4) 덴마크 판본은 브레히트가 미국 망명을 떠난 후인 1943년에야 비로소 중립국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무대에 오른다(GBA 5.373).

국민의 관심사를 다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GBA 27.39).

‘도덕기관으로서의 연극’이라는 독일적 전통을 추구해 온 브레히트는 연극을 ‘저녁시간의 오락거리’로 여기는 미국 문화에 충격을 받고 갈릴레이 공연 자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다. 일찍이 유럽 망명 시절 덴마크 판본의 영역본을 마련해 둔 그였지만 미국의 연극문화에 실망한 나머지 갈릴레이 공연에 대한 미련을 아낌없이 버린 것이다.

하지만 1944년 4월 미국의 연극 제작자이자 연출가인 제드 해리스 Jed Harris (1900-1979)가 뜻밖의 제안을 해오면서 갈릴레이 공연의 가능성은 되살아난다 (GBA 27.183). 브레히트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덴마크 판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갈릴레이를 ‘노획한 과학자’로 설정했던 기존의 구상을 반성적으로 재평가한다.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을 불편케 했던 윤리를 검토했다. 왜냐하면 역사는 따르려 했지만 윤리적 관심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윤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GBA 27.183).

덴마크 판본의 갈릴레이의 윤리가 나치 투쟁이 절박한 상황에서 안출된 저항 방식으로 나름의 역사적 정당성을 지니지만(크노프 2007, 167f. 참조), 브레히트는 이를 짐짓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작가는 갈릴레이의 실천 윤리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다.

그[갈릴레이]가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학문적 신념을 철회한 것을 옳게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은 지나치게 알파하고 값싼 논리다. 갈릴레이는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학문작업의 가장 값진 부분을 파괴한 것이다(GBA 27.183).

이로써 역사 발전을 위한 진리 탐구를 위해 학자적 신념을 철회한다는 덴마크 판본의 논리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폐기된다. 새롭게 펼쳐진 현실 앞에서 한때 ‘제한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논리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기실,

브레히트는 독일 잔류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은밀하게 저항하기를 바랐으나, 이들은 오히려 '히틀러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나치 정복전쟁의 선봉으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Holborn 1981, 550ff). 이런 배경에서 전과는 다른 갈릴레이 희곡의 필요성을 절감한 브레히트는 나치 과학자들의 연구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기 위해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집어 든다(Schumacher 1965, 172f). 미국 판본 「갈릴레오 Galileo」가 첫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미국 판본 작업이 본격화되던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투하라는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진다. 무고한 민중을 처절한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으로 인해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GBA 24.240)로 여겨지는 가운데 과학자의 책임 문제는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

우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히로시마에서 >원자< 시대가 열렸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물리학 창시자의 전기는 달리 읽히게 되었다. 거대한 폭탄의 극악스런 성공으로 갈릴레이와 지배층의 갈등은 보다 강렬한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GBA 24.241).

이제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 문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사적 관점에서 성찰해야 할 거시적 화두로 등장한다. 갈릴레이 희곡이 '전쟁 국가' 미국에 복무한 핵물리학자들의 비유로 읽히면서 이들의 “과학적 성취”는 민중의 삶을 유린한 “사회적 실패의 고전적 생산물”(GBA 5.240)로 인식된다. 즉, 원자탄은 “사회와 과학의 관계”를 “삶과 죽음의 문제”로 치환시킨 “현대 자연과학의 원죄”(GBA 5.240)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핵분열이라는 현대과학의 위대한 발견이 인간을 대량 살상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목도한 브레히트는 과학의 순수한 진보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과학과 정치를 불가분의 사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GBA 24.252). 이런 인식은 원폭 투하 직후 아인슈타인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본 브레히트의 입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불붙은 미소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아인슈타인은 “원자탄이 다른 세력, 특히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는 안 된다”고 미국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는데, 브레히트는 그런 아인슈타인을 두고 “정치에 대한 일반화의 약점을 지닌 탁월한 전문두뇌”(GBA 27.234f.)

라고 비꼬며 정치적 단견을 비판한다. ‘탁월한 전문두뇌’ 아인슈타인은 진영 논리의 잣대로 핵문제를 바라보았을 뿐, 진영을 막론하고 지배 권력의 핵독점이 가져올 재앙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임경순 1995, 169 참조). 지배질서에 필요하다면 어떤 극약처방도 꺼내둘 수 있는 게 권력의 기본 속성이며, 그로 인한 희생은 오롯이 민중의 몫이라는 작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⁵⁾ 미국 판본이 제기한 과학자의 책임 문제는 민중의 생존권을 절대적으로 중시한 평화주의자 브레히트의 고민의 산물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의 발견이 민중의 재앙이 된 현실을 반영하려는 미국 판본은 갈릴레이를 역사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과학자’로 형상화한다. 당대 과학자들의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고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한 문학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미국 판본 작업은 갈릴레이가 과학자로서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먼저 주인공 갈릴레이의 개인적인 면모를 그리는데, 그는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을 지닌 학자가 아니라 학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세속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덴마크 판본의 중심 서사를 구성한 흑사병 장면(5장)은 전면 삭제되고, 망원경 장면(2장)은 전과는 다른 색채를 부여 받는다. 이를 테면, 재단 이사가 망원경을 소개했던 이전 판본과는 달리(GBA 5.21ff.), 갈릴레이가 직접 나서 망원경을 자신의 발명품인 것처럼 시연해 보이는데(GBA 5.126f), 이는 갈릴레이의 학자적 양심을 의심케 하기 위한 수정이다. 아울러 미국 판본은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를 진리 탐구를 위한 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지배 권력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제시한다. 갈릴레이는 육체적 고문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을 스스로 학자적 권위를 부정할 근본 이유로 드는데(GBA 5.178), 이런 맥락에서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를 정당화했던 문학적 기제들은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베이컨의 자연관과 ‘코이노의 비유’ 등은 탈각된다. 같은 이유에서 가택 연금된 갈릴레이 연구의 성격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제 그의

5) 이런 통찰을 브레히트는 미국 판본 작업 도중 파생된 ‘프로메테우스 희곡’ 구상에서 ‘지배층과 민중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발명하여 신들에게 넘기는 죄를 저지른다. 신들은 그가 인간들에게 불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불잡아 포박한다. 불에 관한 소식을 오래도록 듣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지평선 위에 검붉은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걸 본다. 인간들을 약탈하기 위해 신들이 불을 사용한 것이다”(GBA 27.233).

연구행위는 새 시대를 열 진리를 탐구하는 은밀한 투쟁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일 뿐이다(GBA 5.174ff.).

미국 판본은 '실패한 과학자' 갈릴레이의 개인적 면모에 이어 사회적 태도를 검토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가 갖는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갈릴레이의 몰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작품은 인물들 사이에 사회적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갈릴레이의 학설이 지닌 계급적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덴마크 판본의 루도비코 지티는 루도비코 마르실리라는 이름의 봉건 영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오랜 귀족 혈통의 젊은 후계자로서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그는 갈릴레이의 학설이 자신의 영지에 미칠 영향력을 예감하고 이를 경계한다(GBA 5.158). 또한 미국 판본은 갈릴레이의 과거 친구인 교황을 지배질서의 수호자로 등장시켜 갈릴레이와 대립시킨다. 오랜 친구의 기대를 저버린 교황은 갈릴레이의 심문을 명령하면서 교회질서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GBA 5.164ff.). 다른 한편, 성장하는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물업자 마티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들에게 계급적 해방의 역을 지닌 학설의 주인공 갈릴레이를 전향적으로 지지한다(GBA 5.165). 특히 갈릴레이 학설의 사회적 의미는 9장 사육제 장면(GBA 5.160ff.)이 큰 폭으로 수정되면서 더욱 명확해진다. 갈릴레이의 학설에 고무된 민중의 선동적 분위기가 정치적 행위로 발전하는 사육제 행렬 장면은 “갈릴레오, 성경 파괴자!”(GBA 5.163)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절정에 이르는데, 갈릴레이의 과학적 발견이 민중에게는 새 시대의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국 판본은 이처럼 사회적 대립관계의 설정을 통해 갈릴레이와 민중의 연계성을 분명히 한다. 특히 마티는 갈릴레이에게 진보적인 시민계급과 수공업자들이 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북부 호반도시들은 언제나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한다(GBA 5.165). 이것이 갈릴레이가 지배세력과 민중 사이에서 취해야 할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서사적 포석임은 물론이다(Völker 1983, 189).

그러나 갈릴레이의 행보는 자신의 학설에 얽힌 계급적 이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황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연연해하는 그는 교황청이 자신의 학설을 인정하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결국 교황의 우정에 대한 갈릴레

이의 기대는 헛된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허황된 희망은 자신의 학설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통찰하지 못한 갈릴레이의 한계를 반증한다. 이렇게 ‘실패한 과학자’ 갈릴레이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런 배경에서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의 학설 철회는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력층에게는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면, 새 시대를 갈망하는 민중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로 드러난다. 개인적, 사회적 한계를 지닌 갈릴레이는 새 시대를 열어 갈 과학자로서 사회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철회한 갈릴레이는 민중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해체’했을 뿐 아니라 민중의 배신자로서 ‘현대 자연과학의 원죄’를 걸머지는 운명에 처한다(GBA 5.240). 이처럼 미국 판본은 역사 발전이 중단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전망부재의 현실을 눈앞에 펼친다. 미래의 전망을 열어놓았던 덴마크 판본의 14장이 완전히 탈각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판본은 민중의 해방을 위한 ‘과학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실패한 과학자’ 갈릴레이를 통렬한 자기비판으로 이끈다.

나는 과학자로서 유일무이하다 할 만한 기회가 있었네. 내 젊은 시절, 천문학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었지. 그 특별한 시기에, 누군가가 투쟁했더라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걸세. 사르티, 난 결코 심각한 위협에 처했었다고 생각지 않네. 나도 몇 년 동안은 권력층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난 권력자들에게 지식을 넘겨주었다네. 그들의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말일세. 난 과학자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네(GBA 5.180).

갈릴레이의 엄정한 자기단죄는 과학적 발견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시대현실 앞에 선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의식을 일깨운다. ‘미국 판본’은 ‘실패한 과학자’ 갈릴레이를 등장시킴으로써, 과학적 발견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과학자의 윤리의식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⁶⁾

6) 카타리나 브링케르트 Katharina Brinkert는 최근 연구에서 브레히트가 유네스코 UNESCO의

III.3. 베를린 판본 「갈릴레이의 생애」(1955/56): '고뇌하는 과학자'

미국 망명 중인 브레히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갈릴레이 희곡을 유럽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 덴마크 판본을 탐탁지 않게 여긴 브레히트는 출판업자 페터 주어캄프 Peter Suhrkamp(1891-1959)를 통해 이런 답변을 보낸다.

갈릴레이에 관한 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완성본인 스위스 공연 판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대에 올릴 수 없다네. 이제 막 찰스 로틴을 위해 수정작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독일어로는 인쇄되지 않은 상태라네(GBA 29.372).

브레히트는 유럽에서 갈릴레이 희곡을 공연한다면 필히 미국 판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을 다룬 미국 판본을 토대로 자신의 연극관에 걸맞은 갈릴레이 희곡의 모델을 만들려 한 것이다(GBA 5.349). 장차 귀국하면 무엇보다 먼저 갈릴레이 희곡을 베를린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베를린 판본은 이런 배경에서 새로이 기획되었으며, 1947년 10월 31일 미국을 떠난 브레히트가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베를린 판본 작업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전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격화하는 첨예한 현실 앞에서 베를린 판본은 미국 판본의 화두를 계승하지만 시대 현실의 변화에 따른 변주를 시도한다. 1949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1945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핵독점이 붕괴되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거부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나선다. 1952년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지만 1953년 소련 역시 수소폭탄 개발에 개가를 올리면서, 미소의 군비경쟁은 극단으로 치닫는다(임경순 1995, 171ff). 당시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에설, 올리우스 로젠베르크 Ethel und Julius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 Empfehlung zur Stellung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er'(1974)에 앞서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한 지식인으로 그의 선각자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Brinkert 2017, 261f).

Rosenberg 스파이 사건'은 패권경쟁에 사활을 건 미소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훗날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핵무기 기술을 소련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로젠베르크 부부를 긴급 체포한 미국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시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다음 신속하게 형을 집행한다(마리 자겐슈나이더 208ff. 참조). 바야흐로 전후 미소의 패권경쟁 속에서 제3차 대전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54년 '핵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 Robert Oppenheimer(1904-1967)가 과학자들이 '전쟁의 도구'로 동원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자, 즉각 소련 스파이 혐의를 받은 그는 미정보당국의 삼엄한 조사를 받는다. 일본 원폭 투하 이후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미국 핵 위원회 Amerikanische Atomkommission 위원장직을 사퇴한 그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기에 이른 것이다(GBA 5.351).

미국정부의 오펜하이머 조사는 브레히트의 눈에 갈릴레이 재판의 현대적 재연으로 비추어졌다.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갈릴레이가 '교회의 성실한 아들'이라고 맹세한 것처럼, 자신은 '성실한 민주주의자이자 선량한 미국인으로서 수소폭탄 제조를 방해한 일이 없다'는 맹세를 강요받는다. 아인슈타인이 "현대판 종교 재판"(Schumacher 1965, 234)으로 규정한 미국정부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오펜하이머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당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끈 '오펜하이머 사건'은 냉전체제 속 과학자의 잔혹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마녀사냥식 행태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그는 자기변호의 글을 통해 핵 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배경을 설명하고 미국정부의 핵무장 정책에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다(vgl. GBA 5.351). 오펜하이머의 수동적 행보는 진보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핵폭탄의 아버지'의 정치적 중립선언에 충격을 받은 브레히트는 당시 심경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그의 글은 마치 인육의 조달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인종한테 고발당한 한 남자의 글처럼 읽힌다. (식인종들이) 인간을 사냥하는 동안 그 자신은 가마술에 쓸 나무를 구하러 갔었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슨 어리석은 변명인가! (GBA 27.350)

핵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증립선언을 브레히트는 과학자의 시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비판한다.⁷⁾ 인류를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여 오펜하이머가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 의식을 더욱 절박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베를린 판본은 이런 연유에서 갈릴레이를 '고뇌하는 과학자'로 형상화한다. 동베를린에 입성한 후 세계평화위원회 Weltfriedensrat 등에서 평화주의 운동을 벌이던 브레히트는 갈릴레이 희곡의 베를린 공연과 베를린 판본의 출판을 재촉한다(GBA 5.351). 핵전쟁의 위협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인류 평화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작가적 노력을 쏟은 것이다. 1956년 심장병 악화로 영면에 들 때까지 계속된 베를린 앙상블의 슈프라우어담 극장 공연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베를린 판본은 1957년 작가가 세상을 떠난 1년 뒤-덴마크 판본처럼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ie*」라는 제목으로 - 세상 빛을 보게 된다.

기본적으로 베를린 판본은 미국 판본과 덴마크 판본의 결합체로 태어났다. 작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미국 판본의 텍스트”와 덴마크 판본의 “사용 가능한 텍스트” 그리고 “새로 작성한 텍스트”를 한데 엮은 결과물이다(vgl.GBA 5.368). 이 같은 결합의 원리는 주인공 갈릴레이가 '고뇌하는 과학자'로 거듭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먼저 덴마크 판본의 1장(GBA 5.9ff.)과 5장 흑사병 장면(GBA 5.47ff.)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데, 이를 통해 미식가적 취향을 지닌 감각적 인물인 동시에 학문적 열정을 지닌 학자 갈릴레이의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 여기에 자신의 발명품으로 속인 망원경을 이용해 봉급 인상을 피하는 미국 판본의 2장(GBA 5.126)이 결합되면서 베를린 판본의 주인공 갈릴레이의 성격이 완성된다. 이전 판본과는 달리 그는 '인간적 모순과 한계를 지닌 세속적인' 인물이다. 갈릴레이를 이런 형상으로 설정한 것은 물론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7) 브레히트는 「아인슈타인의 생애 *Leben des Einstein*」 작품 구상을 통해 핵 시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연극적 공론장에 올려놓으려 한다. 1955년 베를린 판본 준비가 한창이던 중 아인슈타인이 사망하자 갈릴레이 희곡에서는 암시에 그칠 수밖에 없는 - 오펜하이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말미암은 - 핵시대 과학자의 책임 문제를 다룰 계획을 세운다. 이는 당대의 긴급한 화두를 실질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였으나 구체적 실현은 보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는다(GBA 10.984ff.).

이제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는 ‘피와 살을 가진’ 인물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로 상정된다. 이것이 갈릴레이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게 아님은 자명하지만, 작가는 갈릴레이의 학설 철회가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킨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미국 판본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립구도를 강화하여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위치와 상호 관계를 한층 분명히 한다(GBA 5.370). 이런 취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베를린 판본은 미국 판본의 도보네스와 루도비코를 루도비코 카페트라는 한 인물로 통합하는 한편, 주물업자 마티는 갈릴레이의 렌즈가공업자 페데르초니와 바니라는 두 인물로 확대 수용한다(GBA 5.188). 이를 통해 갈릴레이 또한 모순과 한계를 지닌 세속적 존재지만, 역사 발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과학자로서 민중의 편에 서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다. 갈릴레이가 ‘책임 있는’ 과학자로서 투철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길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갈릴레이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철회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 그는 학자적 명성이 절정에 이른 순간 가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해방의 미래를 꿈꾸던 민중들은 다시 암흑의 역사 속으로 추락한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통해 갈릴레이는 자신과 민중 모두를 파국으로 내몬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판본과는 달리 베를린 판본은 갈릴레이의 냉혹한 자기단죄로 작품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갈릴레이의 반성적 성찰에서 파국을 돌파할 희망을 모색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를린 판본에 새로 추가된 15장 ‘과학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한다.

나는 과학자로서 돌도 없는 기회가 있었지. 내 시대에 천문학은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갔네.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라면 한 남자의 의연함이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네. 만일 내가 저항했다면, 자연과학자들도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었겠지 - 자신들의 지식은 오직 인류의 안녕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맹세 말일세!(GBA 5.284)

베를린 판본의 문제의식을 함축한 이 대목에서 갈릴레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정치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깊이 고뇌한다. ‘저잣거리의 민중들’까

지 과학적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된 상황에서 자기 하나만 의연하게 처신했더라면 '자연과학자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리라는 처절한 고백은 갈릴레이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속적 가치에 연연함으로써 '책임 있는' 학자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과오를 통감하는 가운데 그는 사회정치적 책임에 눈뜬 과학자로 거듭난다. 이로써 베를린 판본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는다. 나아가 작가는 갈릴레이의 뼈아픈 각성을 청년 과학자 안드레아로 연결시킴으로써 전망부재의 현실에서 미래의 전망을 열어놓는다. 이 점에서 '디스코르시'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덴마크 판본의 14장(GBA 5.107ff.)을 베를린 판본의 15장(GBA 5.286ff.)으로 다시 수용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바, 작가는 이를 통해 안드레아에게서 '현대 과학자의 원죄'를 넘어 설 투철한 책임의식을 지닌 과학자상(像)을 기대한다(Hallet 2012, 24). 베를린 판본은 절대 절망의 시대에 직면하여 '고뇌하는 과학자' 갈릴레이를 통해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의식을 일깨우려는 작가 브레히트의 절박한 고민의 산물인 것이다.

VI. 맺는 말

후기의 역작 '갈릴레이 희곡'을 통해 브레히트는 근대과학의 선구 갈릴레이를 시대현실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변주한다. 그 결과 완성된 세 개의 판본은 갈릴레이를 각각 '노회한 과학자', '실패한 과학자', '고뇌하는 과학자'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덴마크 판본'은 과학 발전을 지렛대 삼아 '암흑의 시대'를 넘어 설 기대 속에 '노회한 과학자' 갈릴레이를 형상화한다. 유럽 지배 야욕을 노골화한 나치 독일에 맞서 장기적 안목의 지략을 펼칠 인물이 거듭난 것이다. '미국 판본'은 갈릴레이에게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다. 과학의 발견이 인류의 재앙이 된 현실 앞에서 브레히트는 갈릴레이를 '실패한 과학자'로 설정함으로써 과학자의 사회정치적 책임을 냉정하게 따져 묻는다. 이는 과학의 진보를 회의하기 시작한 작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증언하는 대목이다. '베를린 판본'은 인류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 미소의 핵 패권경쟁이라는 침예한 시대현

실 속에서 ‘고뇌하는 과학자’ 갈릴레이를 등장시킨다. 작가는 고뇌어린 자기성찰 속에서 ‘책임 있는’ 과학자의 소명을 통감하는 갈릴레이에게서 절망의 시대를 헤쳐 나갈 일말의 희망을 탐색한다. 이처럼 세 개의 판본은 제각기 급변하는 시대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독자적인 가치를 오롯이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갈릴레이 희곡이 탄생시킨 ‘갈릴레이들’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현실과 치열한 대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이들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온전히 발휘된다. ‘갈릴레이들’은 실존 인물 갈릴레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도발하면서 시대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촉구한다. ‘역사적 갈릴레이’를 ‘지금, 이곳’의 인물로 재탄생시켜 관객과의 역동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갈릴레이 희곡의 세 판본은 시대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용자와 ‘생산적인’ 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역사적 전망을 열어가려는 브레히트 리얼리즘 이념의 생생한 산물에 다름 아니다.

참고 문헌

1차 문헌

- 브레히트, 베르톨트(2005): 브레히트의 연극이론(송윤엽 외 옮김). 연극과인간.
 Brecht, Bertolt(1988-2000):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Hg. von W. Hecht, J. Knopf, W. Mittenzwei, K-D Müller. Bd. 5, 10, 11, 14,
 18, 24, 27, 29. Berlin Weimar F.a.M.

2차 문헌

- 임경순(1995): 20세기 과학의 쟁점. 159-175.
 차젠슈나이더, 마리(2003): 재판(이온화 옮김). 클라시커 50. 해냄. 178-183. 208-213.
 장석준(2007): 혁명을 꿈꾼 시대. 육성으로 듣는 열정의 20세기. 270-282.
 크노프, 안(2007): 베르톨트 브레히트(이원양 옮김). 인물과 사상사.
 한국브레히트학회(2001): 브레히트의 연극세계. 열음사. 268-283.

- Brinkert, Katharina(2017): Brecht und die Naturwissenschaften – Die Naturwissenschaften und Brecht. Eine dialektische Betrachtung. In: Issbrücker, Volker/Hippe, Christian(Hg.): Brecht und Naturwissenschaften. Berlin. 251-263.
- Hallet, Wolfgang(2012): Bertolt Brecht. Leben des Galilei. München.
- Holborn, Hajo(1981): Deutsche Geschichte in der Neuzeit. Bd. III. Das Zeitalter des Imperialismus (1871-1945). F.a.M.
- Knopf, Jan(2001): Brecht Handbuch. Bd. 1. Stücke. Stuttgart, Weimar. 178-215.
- Kugli, Ana/ Opitz, Michael(2006): Brecht Lexikon. Stuttgart. 170-172.
- Schumacher, Ernst(1965): Drama und Geschichte. Bertolt Brechts >Leben des Galilei< und andere Stücke. Berlin.
- Völker, Klaus(1983): Brecht Kommentar zum dramatischen Werk. Mitarbeit Hans-Jürgen Pullem. Münschen. 184-194.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zu Brechts Fassungen des *Galilei* - unter dem Gesichtspunkt der Verwandlung des Wissenschaftlerbilds

Oh, Seong-Kyun (Chung-Ang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auf Brechts Fassungen des *Galilei*, also die *dänische Fassung* (1938/39), die *amerikanische Fassung* (1947) und die *Berliner Fassung* (1955/56), in ihrem jeweils selbständigen Sinn und Wert eingegangen. Zu diesem Zweck sollen der Entstehungskontext jeder Fassung sowie Brechts Zeiterkenntnis und Problembewusstsein in Betracht gezogen werden. Auf dieser Grundlage werden die Grundeigenschaften jeder Fassung unter dem Gesichtspunkt der Hauptfigur des Galilei beleuchtet. Der Stückeschreiber, der den Symbolcharakter des im Gedächtnis der Menschen bewahrten Galilei ins Auge fasst, formt ihn um

zu einer den historisch gewandelten Verhältnissen der gegenwärtigen Zeit gemäßen Figur. Daraus ergeben sich drei Versionen *Galileis*, stehend für ein je unterschiedliches Bild des Wissenschaftlers: den “Listigen Wissenschaftler”, den “Gescheiterten Wissenschaftler”, den “Leidenden Wissenschaftler”. Diese aus der ständigen Überarbeitung hervorgegangen Versionen des *Galilei* gewinnen aber die Bedeutung ihrer Existenz dadurch, dass sie imstande sind, bestehende Erwartungshaltungen gegenüber der historischen Figur zu konterkarieren und durch diese Provokation zu dialektischer Erkenntnis der Realität zu führen. Also wird ein dynamisches Gespräch mit dem Publikum in Gang gebracht, indem aus dem historischen Galilei die genannten gegenwartsbezogenen Galilei-Versionen entwickelt werden. Insofern erweisen sich die Fassungen des *Galilei* als Ergebnis des Brechtschen Realismuskonzepts, welches in der Schaffenspraxis eine ununterbrochene Kommunikation mit der unmittelbaren Zeitgegenwart fordert.

Schlüsselwörter: Brecht, Galilei-Stück, Listiger Wissenschaftler,
Gescheiterter Wissenschaftler, Leidender Wissenschaftler

필자 E-mail : abert@cau.ac.kr

논문투고일: 2019. 11. 15 / 심사완료일: 2019. 12. 2 / 게재확정일: 2019. 12. 13